



고위험지역 대상자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및 검진사업 실시

2012년부터 성매개감염병 및 결핵검진사업 시작

정부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집창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현재 보건소 출장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진대상자의 검진기피 등 그동안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매개감염병 및 결핵을 포함한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개할 우려가 비교적 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우리협회는 2012년부터 성매개감염병 및 결핵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 취약지역에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조기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전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단순 검진을 넘어 성매개감염병 및 결핵에 관한 홍보, 보건교육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검진사업 목표인원을
1천 명으로 잡고
한티전국연합의 회원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11개 지역과
관할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2곳 정도의
지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대 여성의 결핵, 생각보다 높아

2009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신고 신환자 분포에 의하면 75세 이전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의 신환자 분포가 높으나 유일하게 20~24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신고 신환자 분포가 높아(총 2,419명 중 남자 1,150명, 여자 1,269명) 사업 대상자인 여성 종사자의 결핵검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협회는 우선 성매개감염병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강사를 구성하고 성매개감염병 관련 교육 경험과 관련 분야 전문가(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를 통해 교육자료 및 홍보 리플렛, 스티커를 제작했으며 성매개감염병 및 결핵검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교육은 현장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리플렛, 스티커)을 통한 교육 실시, LED 모니터를 이용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관련 영상 방영, 교육 후 설문지 작성(기초설문, 건강관련 인식 조사, 교육관련조사 등 A4용지 2매) 등으로 구성되며, 결핵검진은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엑스선검진으로 이동 및 주차가 용이한 미니버스를 구입, 특장하여 문진 및 엑스선검진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결핵검진 결과통보(전문의 동행 현장판독) 및 유증상자 객담을 채담하며 유증상자를 관할 보건소로 방문 유도하는 등으로 큰 줄기를 잡고 있다.

올해 안으로 1천 명 검진 목표

협회는 올해 검진사업 목표인원을 1천 명으로 잡고 한티전국연합의 회원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11개 지역과 관할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2곳 정도의 지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결핵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통보되며, 흉부엑스선상 유증상자 발견 후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는 현장에서 객담을 채담하여 협회에서 검사 실시 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2차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매개감염병의 경우 검체를 검사한 보건소에서 우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소 및 관련 의료기관(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에서 확진 및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